

아동기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및 용서의 관계*

라 영 선 현 명 호[†] 차 성 이 윤 선 영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학대 중에서도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예측하는지와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용서는 특질용서와 상황용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 특질용서, 상황용서, 그리고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학대는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상황용서와 특질용서가 조절하였고 특질용서보다 상황용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정서적 학대가 심각하더라도 상황용서와 특질용서 수준이 높으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학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상황용서, 특질용서, 조절효과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27-H00033), 이 연구의 일부 내용은 2009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 02-820-5125 / E-mail : hyunmh@cau.ac.kr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심각한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아동이 빈번히 발생하며, 그 사회적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를 보면, 2004년도에 전국 38개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6,998건에 달했으며, 다수의 학대 피해 아동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미현, 2006). 이처럼 한국 가정에서 아동학대의 발생 수준은 매우 높고, 그 후유증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은 1962년 미국에서 최초로 ‘피학대 아동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부터 대두되었다(문나영, 2009). 초기에는 아동 학대를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학대에 국한하여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였다(Kempe, Silverman, Steele, Droegemueller, & Silver, 1962). 그러나 그 후에는 신체학대 이외에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하였다(고성혜, 1992).

2000년 개정된 국내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중에서도 학대의 징후가 비교적 뚜렷한 신체학대에 대한 연구는 Kempe 등(1962)의 연구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정의가 모호하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외부로 즉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영역은 연구가 부진하였다(Creighton, 1988).

정서적 학대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탈 행위를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습관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자녀를 모독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적대적, 거부적 학대형태를 의미한다(Szur, 1987).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행동적, 정서적 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며(Hart & Brassard, 1987), 지속될 경우 아동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전철은, 현명호, 2003). 그러나 정서적 학대와 같이 대인간 폭력의 성격을 띤 장기적인 외상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외상후 반응은 PTSD 증상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Herman, 1992). 또한 PTSD의 진단기준은 단순히 외상사건의 재현 경험과 회피, 과각성과 같은 불안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외상 경험이 자신에 대한 지각이나 대인관계 방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van der Kolk & Courtois, 2005).

외상 연구자는 정서적 학대를 비롯한 아동기 학대, 가정폭력, 성매매 경험과 같이 반복적이면서 대인간 폭력을 띤 외상을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이를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Terr, 1992). 복합 외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Herman(1992)이 PTSD 진단의 한계를 지적하고, 반복적인 대인적 외상 이후에 나타나는 고유한 심리적 증상은 PTSD와 구별되는 복합 PTSD(complex PTSD)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한 이

후이다(안현의, 2007).

Herman(1992)이 제안한 복합 PTSD는 첫째, 복합 외상 경험자에게서 나타나는 정서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 주의력과 의식의 변화, 신체화 장애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TSD에서 나타나는 과민성, 분노, 공격성 등의 각성반응 증가가 복합 PTSD에서는 충동적으로 분노를 폭발하거나 자신을 해치는 등의 정서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정서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은 장기간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의 핵심적 증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양계령, 2008).

외상 사건을 장기간 반복 경험하게 되면 의식을 현실에서 분리하여 대처하기도 한다. 이것은 복합 PTSD에서 나타나는 기억상실이나 비현실감(derealization), 이인화(depersonalization) 등의 해리 증상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합 외상은 도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피해자는 절대적인 약자로서, 외상 경험 당시에 일어나는 분노,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거나 해소하지 못하고 억압하게 된다. 이렇게 억압된 부정적인 정서는 메스꺼움, 현기증, 실신, 근육통 등과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난다(신응섭, 채정민, 1996).

둘째, Herman(1992)이 제안한 복합 PTSD는 자기인식, 의미체계, 대인관계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합 외상을 경험하면 스스로를 무능하고 수치스럽게 인식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외상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함으로써 죄책감을 심화시킨다(Janoff-Bulman, 1992). 이러한 자기인식 변화는 절망감을 비롯하여 삶과 세상에 대한 의미 체계를 변화시킨다. 또한 타인을 신뢰하기 어렵

고 사회적 지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하며(전철은, 현명호, 2003), 가해자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Herman, 1992).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복합 PTSD의 관계를 직접 탐색한 연구는 없으나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와 복합 PTSD의 관계를 알아본 국내 연구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가 복합 PTSD를 예측하였다(양계령, 2008). 마찬가지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도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복합 PTSD 하위증상인 정서 조절의 어려움, 자기인식 및 대인관계 변화, 신체화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김재엽, 양혜원, 1998).

Browne와 Finkelhor(1986)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노와 적대감, 우울, 그리고 불안 등의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자기 인식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피해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다(Gross & Keller, 1992). 또한 정서적 학대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치심이 높았다(박은주, 2008).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정서적 학대경험이 있는 여대생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며,데이트 폭력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김재엽, 최지현, 2005). 특히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대인관계 특징과 관계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대인관계 불안과 관련이 있었다(신혜영, 최혜림, 2003).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는 신체화 증상과도 관련이 있었다(김재엽, 양혜원, 1998).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 대인관계 문제, 신체화 증상 등 복합 PTSD 하

위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Herman (1992)이 제안한 복합 PTSD 증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Putallaz, 1987), 정서적 학대는 어머니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이주연, 박성연, 1996)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를 중심으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같이 생애 최초 관계인 가족 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개인에게 오래도록 큰 고통과 상처로 자리 잡게 된다(박양리, 현명호, 2009). 따라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개인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내의 외상경험이 있는 개인을 치유하는 한 방법으로 용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Denton & Martin, 1998; Fow, 1996). 그러나 용서는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정의가 달라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McCullough(2000)는 용서를 동기의 변화로 보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회피하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동기가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으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용서는 상처를 받은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을 극복하는 과정이며, 상대를 자비와 동정심,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반응으로 정의되기도 한다(Enright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타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결심은 가해자 및 희생자와 관련된 요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려는 희생자의 경향

성과 같은 성향적인 요인은 용서를 용이하게 한다(Brown, 2003; Emmons, 2000). 또한 가해자의 사과와 같은 상황적인 요인도 희생자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데 영향을 준다(Exline & Baumeister, 2000). 이러한 용서는 특질용서와 상황용서로 구분된다. 특질용서(trait forgiveness)는 용서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의미하고, 상황용서(state forgiveness)는 구체적인 가해 사건 이후에 가해자를 용서한 정도를 의미한다.

용서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의 외상이 심각하더라도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Freedman & Enright, 1996). 용서와 복수가 심리적 건강(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특질용서 수준이 우울 및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sseldyk, 2007). 이와 비슷하게 타인을 용서하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남녀 모두 우울, 불안, 신경증 수준이 높았다(Maltby, Macaskill, & Day, 2001). 이러한 연구는 용서가 복합 PTSD 증상인 정서 조절 및 삶의 의미체계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건강과 관련해서도 용서하지 못함에 따른 분노나 적대감 등 부정적인 정서는 교감신경의 각성 수준, 심혈관, 면역 및 내분비체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용서반응은 교감신경계의 각성 수준을 낮추고 생체 적응성을 회복하여 신체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켰다(박종효, 2003).

성공적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상대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책임 있는 관계라고 지각하고, 갈등이나 상처로 손상된 대인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박종효, 2003). 뿐만 아니라 화해 행동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복수의 악순환을 멈

추고 사회 전반적으로 적응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어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McCullough, 2000).

PTSD로 진단받은 퇴역 군인의 정신건강을 살펴본 결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어려움이 클수록 PTSD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itvliet, Phipps, Feldman, & Beckham, 2004).

용서가 복합 PTSD 하위 증상인 정서 조절 및 의미체계 변화, 신체화 증상, 대인관계 변화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PTSD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용서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하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용서의 하위 구성요인인 특질용서와 상황용서 모두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가 복합 PTSD의 증상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고 용서가 정서적 학대와 복합 PTSD 증상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아동기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예측할 것이다.

가설 2. 특질용서와 상황용서가 아동기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및 충청도 소재 대학(C, H, K대학교)

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상황용서를 측정할 경우 구체적인 피해 사건과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서적 학대를 측정하는 문항에 모두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한 학생(103명)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용서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16명의 자료를 제외한 30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정서적 학대 척도

고성혜(1992)가 한국 실정에 맞게 제작한 방임, 신체학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척도 중 정서적 학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가 아닌 어머니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8세 이전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각 문항에 기술된 사건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전혀 없었다(0)-자주 있었다(3)'의 4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경향이 높았음을 의미하며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상황용서(state forgiveness) 척도

오영희(2008)가 개발한 상황용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에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타인을 실제로 용서한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를 구체적인 대상인 어머니로 한정하여 상황용서를 측정하였다.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9였다.

특질용서(trait forgiveness) 척도

Lee(2008)가 번안한 Heartland의 특질용서 척도(Heartland Forgiveness Scale, HF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타인용서, 자기용서, 상황(situation)용서를 측정하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을 용서하는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Quimette, Saxe와 van der Kolk(1996)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면접지(Complex PTSD Interview: CPTSD-I)의 인터뷰 방식을 양계령(2008)이 질문지 형식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CPTSD-I는 총 37문항으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7가지 증상 영역(정서 조절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주의력과 의식의 변화, 자기인식의 변화, 가해자 인식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신체화 장애, 의미체계의 변화)을 포함하고 있고 각 문항에 대해 빈도와 강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빈도와 강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점수는 빈도 $\times$ 강도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응답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위해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용서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GLM)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한 307명(남자 101명, 여자 206명)의 평균 연령은 20.65세($SD=2.38$)였다. 그 중, 현재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학생이 226명, 동거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 72명, 기타가 9명이었다.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학대는 상황용서, 특질용서와 부적상관이 있었고, $r=-.53$, $p<.01$; $r=-.17$, $p<.01$, 복합 PTSD와는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학대	상황용서	특질용서	복합PTSD
정서적학대	30.66	6.89	-			
상황용서	103.33	11.96	-.53**	-		
특질용서	24.97	5.38	-.17**	.14*	-	
복합PTSD	101.08	57.40	.30**	-.28**	-.16**	-

* $p < .05$, ** $p < .01$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30, p<.01$. 또한 상황 용서와 특질용서 모두 복합 PTSD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28, p<.01$; $r=-.16, p<.01$.

정서적 학대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학대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의 R^2 값이 .08로 유의하였다.

표 2.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회귀 분석표

	β	R^2	adj R^2	F
정서적 학대	.30	.08	.09	26.09**

** $p < .01$.

용서의 조절효과

용서가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상황용서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 정서적 학대와 상황용서를 투

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용서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ΔR^2 값이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단계에서 정서적 학대 $\times$ 상황용서에 의한 ΔR^2 값이 .02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특질용서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 정서적 학대와 특질용서를 투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특질용서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ΔR^2 값이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단계에서 정서적 학대 $\times$ 특질용서에 의한 ΔR^2 값이 .02로 유의하였다.

용서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서적 학대와 용서를 상위 25%, 하위 25%의 고/저 집단으로 각각 구분하여 일반선형모형(GL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은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상황용서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상황용서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덜 심각하였다. 또한 정서적 학대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상황용서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

표 3. 상황용서의 조절효과 검증

	예측 변인	β	R^2	ΔR^2	F
1 단계	정서적 학대	.20	.10	.10	15.94**
	상황 용서	-.17			
2 단계	정서적 학대 $\times$ 상황 용서	.42	.12	.02	5.36*

* $p < .05$, ** $p < .01$.

표 4. 특질용서의 조절효과 검증

	예측 변인	β	R^2	ΔR^2	F
1 단계	정서적 학대	.34	.22	.22	31.48**
	특질 용서	-.25			
2 단계	정서적 학대 × 특질 용서	-.03	.23	.02	4.56*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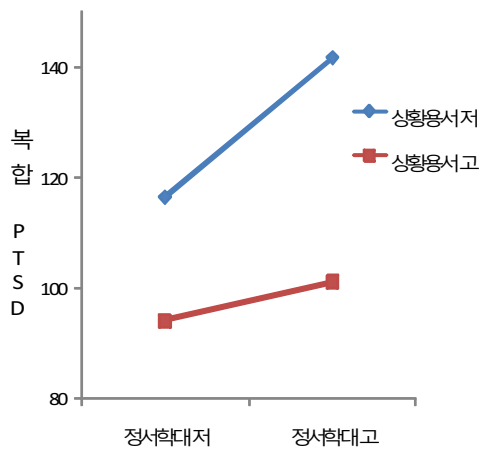


그림 1. 상황용서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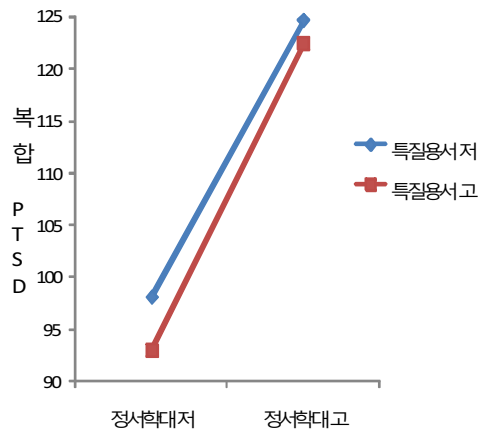


그림 2. 특질용서의 조절효과

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특질용서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상황용서와 마찬가지로 특질용서가 높을 때 덜 심각하였으나 그 차이는 상황용서에 비해 크지 않았다. 또한 상황용서와 달리 정서적 학대 수준이 높을 때 특질용서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논 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국내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주로 신체학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어폭력, 정서적 냉담, 무시, 협박 등을 포함한 정서적 학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은주, 2008).

본 연구는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서적 학대는 어머니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이주연, 박성연, 1996)를 바탕으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정서적 학대와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인간 외상

경험은 PTSD 증상과 구별되는 복합 PTSD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Herman, 1992)에 근거하여 정서적 학대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상황용서와 특질용서가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중심으로 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정서적 학대가 심각할수록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도 심각하였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계령(2008)의 연구와 일치하며, 복합 외상 경험자가 PTSD에서 진단하는 재경험, 과각성, 회피와 같은 불안 증상 외에 성격변화도 경험할 수 있다는 Herman(199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복합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은 PTSD가 공병율이 높은 진단 유목의 하나라는 점으로 이해되었다(Kessler, Sonnega, Bromet, Hughes, & Nelson, 1995).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복합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으로 치료 장면을 찾는 개인이 부적절하게 불안 증상에 초점을 맞춘 치료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용서가 아동기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고, 상황용서와 특질용서 수준이 높을 때 정서적 학대 경험자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완화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대인관계 외상이 심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Freedman과 Enright(1996)의 의견을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Fizzibbons(1986)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경험자의 상황용서와 특질용서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용서 성향보다 실제로 어머니를 용서한 정도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완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가 심각할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복 욕구를 포기하며, 과거의 외상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Spring, 2004). 용서는 가해자와의 화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개인내적인 과정이다. 비록 아동기에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어머니도 자신과 같이 불완전한 한 인간임을 수용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도 적응적으로 변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황용서와 달리 특질용서는 정서적 학대가 심한 경우에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양계령(2008)의 연구에서 성격의 구성개념인 자아탄력성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정서적 학대와 복합 PTSD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와 상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성과 같은 보호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가 반복되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특질용서가 복합 PTSD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황용서보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질용서는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 특성이지만, 상황용서는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질용서 수준이 낮더라도 상황용서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치료한다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치료적 함의를 갖는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아동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는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 관계를 상황용서와 특질용서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가 심각할 경우에는 특질용서 수준보다 상황용서 수준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정서적 학대를 극심하게 받은 사람은 일부분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에 따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고, 이는 설명력이 작은 것과도 관련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경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의 일반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서를 정서적 학대 경험자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해주는 기제로 가정함으로써, 용서의 적응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즉, 학대 상황에서 용서가 가질 수 있는 부정응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매우 심각한 학대상황이거나 가해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매우 클 경우에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McCullough & Worthington, 1999; Worthington, Sandage, & Berry, 2000).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용서를 단일 차원이 아닌 다양한 차원으로 나누어 어떤 차원의 용서가 외상을 가진 피해자에게 더 적합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단적인 용서(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용서를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 역할 기대적인 용서(예, 가족의 강요에 의한 용서), 내재적인 용서(진정한 용서)로 차원을 나누어 각 차원에 따른 결과의 차이점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외상 경험자는 외상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지나친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을 경험할 수 있다(Janoff-Bulman, 1992). 따라서 용서의 범위를 확장하여 타인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자기용서가 정서적 학대와 복합 PTSD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용서가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용서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즉,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오히려 용서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용서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인과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용서가 어떤 기제를 통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시키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정서적 학대의 최초시기 및 지속기간과 같이 정서적 학대의 질을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대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Spinazzola(2005)는 첫 외상 경험의 연령이 낮을수록, 외상 경험을 겪었던

시간이 길수록 외상의 증상이 불안장애 범주를 넘어 더욱 복잡한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동거여부가 정서적 학대 경험자의 용서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하여 통제변인으로 가정하였으나,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서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자의 현재 학대여부 및 학대 지속기간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서적 학대 경험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증상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주요 영역별로 접근하여 통합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더불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재엽, 양혜원 (1998). 자녀학대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5, 37-62.
- 김재엽, 최지현 (2005). 여대생의 아동학대 경험이 정신건강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27-47.
- 문나영 (2009). 아동학대를 받은 대학생의 부적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 방략의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양리, 현명호 (2009). 용서치료 프로그램이 성인아이의 부정적 정서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강심리학회 2009년도 제1차 학술발표대회 및 워크샵 자료집, 47-49.
- 박은주 (2008).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 연구, 18(1), 192-229.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1.
- 신응섭, 채정민 (199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통합적 접근. 하나의학사.
- 신혜영, 최해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2), 295-307.
- 안현의 (2007). 복합외상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양계령 (2008). 심리적 학대와 자아 탄력성이 복합 PTSD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영희 (2008). 한국인 용서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45-1063.
- 이주연, 박성연 (1996).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또래수용과 인성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4(3), 21-34.
- 전철은, 현명호 (2003). 심리적 피해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763-776.
- 한미현 (2006). 한국사회의 아동학대 개념규정

- 및 아동학대의 실태, 진리논단, 307-329.
- Browne, A., & Finkelhor, D. (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 66-77.
- Brown, R. P. (200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tendency to forgive: Construct validity and links with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759-771.
- Creighton, S. T. (1988). Quantitative Assessment of Child Abuse. In P. Maher (Ed.), *Child Abuse*, Oxford: Basil Blackwell.
- Denton, R. T., & Martin, M. W. (1998). Defining forgiveness: An empirical exploration of process and ro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281-292.
- Eaton, J., Struthers, C. W., & Santelli, A. G. (2006). Dispositional and state forgiveness: The role of self-esteem, need for structure, and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371-380.
- Emmons, R. A. (2000). Personality and forgiveness.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Enright, R. D.,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W. Kurtines &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Vol. 1, pp.123-15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xline, J. J., & Baumeister, R. F. (2000). Expressing forgiveness and repentance: Benefits and barriers.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pp.133-155). New York: Guilford.
- Fitzgibbons, R. P. (1986). The cognitive and emotive uses of forgiveness in the treatment of anger. *Psychotherapy*, 23, 629-633.
- Freedman, S. R., & Enright, R. D.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983-992.
- Gross, A. B., & Keller, H. R. (1992).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Aggressive Behavior*, 18, 171-185.
- Hart, S. N., & Brassard, M. R. (1887). A major threat to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2(2), 160-165.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 Janoff-Bu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 Towards a New Psychology of Trauma*. New York: The Free Press.
- Kempe, C. H., Silverman, F. N., Steele, B. F., Droegemueller, W., & Silver, H. K. (1962). The battered-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 17-24.
- Kessler, R. C., Sonnega, A., Bromet, E., Hughes, M., & Nelson, C. B. (199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2, 1048-1060.
- Lee, C. R. (2008). Testing a mediation effects of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al forgiveness and depression: A

- cross cultural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S.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orea.
- McCullough, M. E. (2000).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43-55.
- McCullough, M. E., & Worthington, E. L., Jr. (1999). Religion and the forgiving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7*, 1141-1164.
- Maltby, J., Macaskill, A., & Day, L. (2001). Failure to forgive self and other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personality, social desirability and gener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881-885.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Spring, J. A. (2004). *How can I forgive you? The Courage to Forgive, the Freedom not to*. New York: HarperCollins.
- Szur, R. (1987).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P. Maher(ed.), *Child Abuse: The Educational Perspective*. Oxford: Blackwell.
- Terr, L. C. (1992).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In M. E. Hertzog & E. A. Farber (Eds). *Annals Progress in Child Psychiatry and Child Development*(pp.165-186). New York. Brunner/Mazel.
- van der Kolk, B., & Courtois, C. A. (2005). Editorial comments: complex development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 385-388.
- Witvrit, C. V. O., Phipps, K. A., Feldman, M. E., & Beckham, J. C. (2004). Posttraumatic mental and physical health correlates of forgiveness and religious coping in military veterans. *Journal of Stress, 17*, 269-273.
- Worthington, E. L., Jr., Sandage, S. J., & Berry, J. W. (2000). Group interventions to promote forgiveness: What researchers and clinicians ought to know.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228-253). New York: Guilford Press.
- Ysseldyk, R., Matheson, K., & Anisman, H. (2007). Rumination: Bridging a gap between forgivingness, vengefulness, and psychologic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1573-1584.

원고접수일 : 2009. 8. 4.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0. 6.

게재결정일 : 2009. 10. 20.

Relationship between a Childhood Emotional Abuse, Symptoms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and Forgiveness

Young-Sun Ra Myoung-Ho Hyun Sung-Yi Cha Sun-Young 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inflicted by mother's on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addition,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forg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symptoms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As such, forgiveness was divided into state forgiveness and trait forgiveness. A sample of undergraduate students self-report measurements and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childhood emotional abuse did indeed significantly affect the symptoms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Subsequ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effects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on the symptoms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were moderated by state and trait forgiven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people whose mothers had inflicted upon them a high level childhood emotional abuse exhibited more severe symptoms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even in case of severe childhood emotional abuse, the symptoms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were relieved via state and trait forgivene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have been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abuse; symptoms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state forgiveness; trait forgiveness; moderating effect.